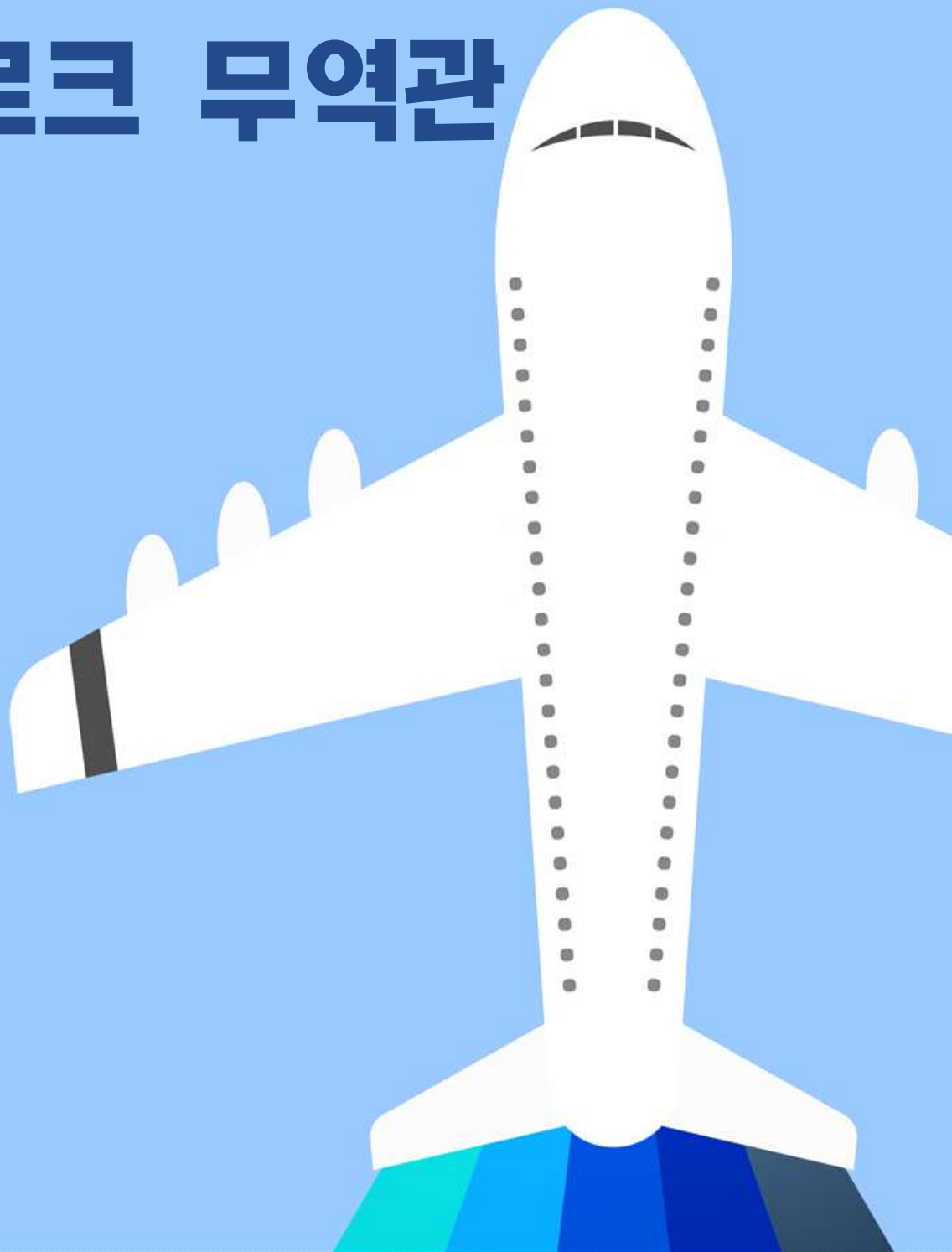


2024 해외출장 가이드

독일

함부르크 무역관

HAMBURG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독일 개황	3
II. 경제·교역동향	5
III. 투자 동향	13
IV. 지역 현안	15
V. 북독일 관할지 안내	24
VI. 독일 방문 및 체류 시 참고사항 ..	27
VII. 함부르크 및 베를린 정보	30
VIII. 함부르크 무역관 정보	40

I. 독일 개황

1. 국가개요

국 명	독일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독일어명 : Bundesrepublik Deutschland)
위 치	서유럽
면 적	357,595km ² (한반도의 1.6배, 대한민국의 3.6배) ('22.12.31. 기준, '23.9. 발표)
기 후	온대성, 연간 월평균 1.5°~18.7° ('23년 연평균 10.6°)
수 도	베를린(Berlin)
인 구	8,461만 명 (독일인 84.9%, 외국인 15.1%, '23.12.21. 기준)
주요 도시	Berlin(388만 명), Hamburg(191만 명), Muenchen(159만 명) Koeln(110만 명), Frankfurt(77만 명) ('23.12.31. 기준, 뮌헨은 '24.3. 기준)
민족(인종)	게르만족
언 어	독일어
종 교	카톨릭(25%), 개신교(23%), 이슬람교(4%), 무교(44%), 기타(4%) (자료원 : Fowid, '22.12.31. 기준)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국가 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Frank-Walter Steinmeier : 국가 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임일 : '17.3.19, 재임 : '22.2.13, 임기 : 5 년 ○ 수상 Olaf Scholz (사민당(SP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임일 : '21.12.8, (단독 과반수 획득 실패, 현재 녹색당(Die Gruenen/Buendnis) 및 자민당(FDP)과 신호등 연정 구축)

2. 경제지표

명목 GDP	4조 1,262억 유로('23년)
1인당 명목 GDP	48,750유로('23년)
실질 경제 성장률	-0.2%('23년, '24.4.30. 수정 발표 수치)
실업률	5.7%('23년 평균), 6.0%('24.4. 당월)
물가 상승률	5.9%('23년 평균), 2.2%('24.4. 당월)
화폐 단위	유로(Euro)
환율	1유로 ≒ 1,465.92원('24.5.6. 기준)
총 설비 투자	9,042억 유로('23년 +5.6%(명목 기준)/ -0.7%(실질 기준))
국내 총 소비(민간 정부)	2조 9,782억 유로('23년 +5.0%(명목 기준)/ -1.1%(실질 기준))
교역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 1조 5,646억 유로(+14.4%(명목 기준)/ +1.6%(실질 기준)) - 수입 : 1조 4,500억 유로(+23.4%(명목 기준)/ +2.8%(실질 기준)) ○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 1조 5,621억 유로(-1.4%(명목 기준)/ -2.2%(실질 기준)) - 수입 : 1조 3,525억 유로(-12.4%(명목 기준)/ -3.4%(실질 기준)) * 독일 연방통계청 현재 집계 기준 최신 수치('24.2. 잠정 발표)
주요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기타 항공기, 전자집적회로,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기타기계류,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 원심분리기·액체용·기체용 여과기·청정기 ○ 수입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 및 역청유(원유),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의약품, 전화기 및 기타 음성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축전지, 자동자료처리기계

* 주 : 독일 연방통계청의 품목별 세부 통계는 순위가 부재한 관계로 Global Trade Atlas 통계 활용, 단, 독일 정부의 통계와 세부 통계 간 최신 발표 시점에 차이가 있음.

II. 경제·교역동향

1. 독일 경제 현황 및 전망

□ 독일 정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용안정과 인플레이션 하락세, 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세와 더불어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전환 및 '24년 GDP +0.3%, '25년 +1.0% 소폭 성장 낙관

- (경기현황) '23년 독일 경제는 러-우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해외 수주감소, 高인플레이션 지속과 더불어 생산 및 소비 둔화로 -0.2% 마이너스 성장
 - '23. 상반기 독일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미·중 경쟁, 부진한 세계 경제, 중간재 부족,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의 경기 하방 요인 속에서도 우려됐던 경기 침체가 다소 완만하게 진행되며, 생산, 소비 부문 기대감 상승
 - * 특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 이후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공급 병목현상 완화와 더불어 '23년 상반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고조
 - 그러나 정부의 낙관적 기대와는 달리 러-우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해외 수주감소, 高인플레이션 지속과 더불어 생산 및 소비 둔화 등 경기 약세 국면 지속,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확산
 - * '23.7.25.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23년 유일하게 독일의 역성장(-0.3%)을 전망**하며 독일 위기론 부각
 - ** 美 +1.8% 中 +5.2%, 日 +1.4, 佛 +0.8%, 英 +0.4% (자료원 : '23.8.6. Handelsblatt)
 -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 하 독일 경제는 지난 2년 동안 둔화세 지속, 그러나 '24년 연초부터 인플레이션 상승 폭 감소*,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생산 확대 등 경기 개선 움직임
 - * '24.2. +2.9% → '24.2. +2.5% → '24.3. +2.2% → '24.4. +2.2% (자료원 : 독일 연방통계청)
- (전망) 독일 정부는 최근 공식 봄 전망에서 '24년 GDP 성장 전망을 기존 +1.3%(23.10.11.) → +0.2%(24.2.21.) → +0.3%로 조정 발표, '25년은 기존 +1.5% → +1.8% → +1.0%로 하향 조정하며 소폭 성장 전망 ('24.4.24.)
 - 하베크(Robert Habeck)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24년 생산 증가, 인플레이션 하락세, 소비자 구매력 증가 등 경기 개선 움직임과 더불어 '온전한 회복세' 전망, 민간 소비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 전망, 탄탄한 고용시장과 함께 상당히 높은 실질 임금이 소비 자극 예상
 - 그러나 하베크 장관은 독일의 중기 성장 잠재력이 연 +0.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며, 중기적으로 높은 성장 달성을 위한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 역설
 - * '24년 독일 정부는 민간 소비 +2.5%, 설비 투자 -0.3%, 수출 -0.6%, 수입 -0.6% 등 주요 지표

감소세 중 민간 소비가 성장 견인 전망 (민간 소비 외, 실질 기준)

- ** 하베크 장관은 ① 새로운 경제적 역동성 활성화, ② 혁신 강화, ③ 불필요한 관료주의 감축, ④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의 개혁 촉구

- **(생산)** 주요 기간 산업 생산량의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은 난망, '24년 기계 산업 회복 난망, 자동차 역시 보조금 조기 종료 및 소비자 수요 감소로 전망 불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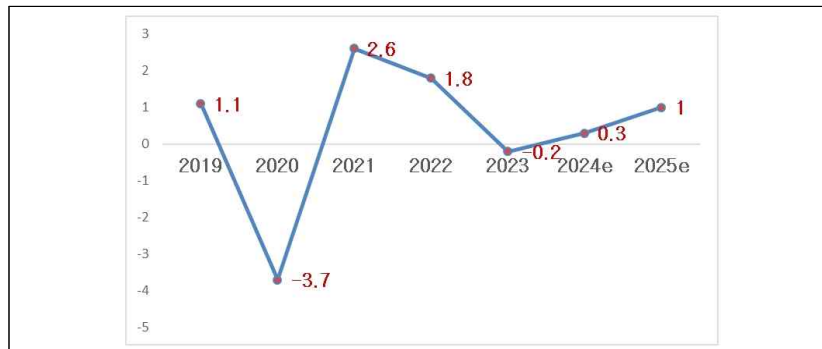
* **(기계)** '23년 수주감소 -12%·'24년 생산량(실질 기준) △4%^f, 독일 기계및설비제조협회(VDMA)는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 판매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전반적으로 기계 수요 약세 전망, 높은 이자율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이 원인, 고객의 불확실성 증가로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추가 투자와 수주 저해, 최소한 해외 수주는 저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

* **(자동차)** '23년 판매량 +7.3%(284만 대)·총생산은 412만 대(+18%)이나 팬데믹 위기 이전 대비 여전히 -12%,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24년 280만 대 판매(-1%^f) 전망,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19년 보다 약 1/4 적은 수치, 독일 자동차 산업계는 혁신적인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24~'28년 R&D에 약 1,800억 달러) 예정, '24년 독일 내 생산 410만 대 전망 ('23년 대비 0%), 해외 생산량 1,060만 대('23년 대비 +4%)

<독일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

GDP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e	2025 ^e
성장률(%)	1.1	-3.7	2.6	1.8	-0.2	0.3	1.0



자료원 : 독일 연방통계청('24.4.30. 수정 발표 기준), 독일 정부('24년과 '25년은 전망치)

○ **(소비)** 물가 상승세 둔화 및 임금 상승, 실질 소득 증가 기대와 더불어 '24년 +2.5%^f로 경기 회복세 견인 전망, '25년에도 +2.0%^f로 완만한 증가세 예상

- **(물가)**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세가 다소 완화 조짐을 보이며, 물가는 다소 안정세 진입 예상, '24년은 +2.4%^f, '25년 +1.8%^f로 상승 폭 감소 전망

* '23.2.이래 식품 가격 상승세가 인플레이션의 주요인인 에너지 가격 인상을 추월하며, 가장 큰 물가 상승 요인으로 부상했으나, '24.4. 기준 상승세 다소 완화 움직임 (자료원 : 독일 연방통계청)

- **(내수 수요)**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과 소비 회복세와 더불어

내수 수요도 소폭 회복세 기대 ('24년 +2.5%, '25년 +1.9% 전망)

- **(고용)** 러-우 사태 이래 높은 인플레이션, 소비·생산 및 경기둔화 등 경기 하방 요인에도 '23년 독일 실업률은 5.7%로 전년 5.3% 대비 소폭 상승 (자료원 : '24.1.3. 독일 연방노동청(BA))
 - 독일 연방노동청의 날레스(Andrea Nahles) 회장은 “'23년 취약한 경제가 고용시장에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편”이라고 밝힘 (자료원 : '24.1.3. 독일 연방노동청(BA))
 - '24.4. 실업률은 6.0%로 전월과 동일하나, 실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만 4,000명 증가 (+0.3%p), 전월 대비 20,000명 감소(계절 조정 통계로는 10,000명 증가)한 275만 명 기록
 - * 독일 연방노동청의 테르첸바흐(Daniel Terzenbach) 지역 담당 이사는 “고용시장은 여전히 경기의 뒷받침이 부족하며, 봄철 경기 상승세는 여전히 미약하다. 독일 경제는 2년 동안 성장모멘텀을 얻지 못했으나, 고용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밝힘 (자료원 : 독일 연방노동청(BA))
 - '24년 실업률은 난민 유입 지속 및 경기 침체 등의 우려로 5.8%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나, 예년 대비 대체로 안정세 예상, '25년에는 5.6%로 소폭의 회복세 기대 (자료원 : '24.4.24. 독일 정부)

ECB, '22.7. 이래 열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 후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 **(정책금리 인상)**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23.9. 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4.25% → 4.5%), 한계대출금리(4.50% → 4.75%), 수신금리(3.75% → 4.0%) 등 주요 정책 금리 모두 0.25%p 인상 ('23.9.14.)
 - ECB는 유로존 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조치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지난 '22.7. 이래 열 차례 연속 인상, 이로써 수신 금리는 '99년 통화동맹 출범 이후 최고 수준
 - * 기준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비용이 높아지며, 이는 결국 상품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나, 장기적으로는 기업 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자료원 : '24.4.30. Die Zeit)
- **(전망)**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24.4. 5회 연속 금리 동결, 인플레이션 하락세로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공식 언급
 - *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은 '23.10. 최고치(10.6%)를 기록한 후 지속 하락세('24.3. 및 '24.4. 모두 +2.4%)이나, 여전히 중기 목표인 2% 대보다 높은 수준
 -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ECB 총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목표에 접근하고 있음을 확신할 때 긴축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 또,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 등 미국의 경제 변화가 유로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ECB는 미 연준(FED)과 독립적으로 역내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 (자료원 : '24.4.11. ECB, '24.4.12. Handelsblatt)
 - * Ifo 경제연구소 역시 가격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인플레이션은 지속 감소 전망, 아울러 2%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으로 조기 복귀 전망에 따라 유럽중앙은행 (ECB)은 곧 금리 인하 결정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자료원 : '24.4.3. Handelsblatt)

2. 독일의 교역동향

- * 통계 기준(달러화)을 위시해 통계 집계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GTA 수출입 증감률은 독일연방통계청 발표 수치와는 편차 有

□ 주요 수출국 및 수출품목

- **(수출국)** '23년 독일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 폴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영국 등으로, 전년과 순위가 동일. 브렉시트 이후 교역 감소세가 두드러졌던 영국은 전년에 이어 8위 유지
 - 중국(4위), 오스트리아(7위), 스위스(9위) 등을 제외한 모든 10대 수출국이 모두 완만한 증가세 기록, 對 영국 수출이 +9.4%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對 중국 수출은 상반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6.4% 감소
 - 한국은 전년 대비 한 계단 하락한 18대 수출국으로 對 한국 수출 규모는 221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4%로 소폭의 감소세 시현
- **(수출품목)** '23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기타항공기 등이며, 총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 순위 변화가 크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완화 영향 속 의약품의 수출이 -10%로 감소하였고, 기타항공기가 +18.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이 외에도 수출 1위 및 3위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각각 +13.7%, +8.1%를 기록하며 양호한 증가세 시현

<독일의 5대 주요 수출품목>

(단위 : U\$백만, %)

순위	2022년			2023년		
	품목	금액	증감률	품목	금액	증감률
총계	-	1,676,462	2.8	-	1,719,244	2.6
1	자동차	155,951	11.6	자동차	177,315	13.7
2	의약품	74,257	15.5	의약품	66,830	-10.0
3	자동차부품	61,453	-4.7	자동차부품	66,425	8.1
4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44,407	-7.4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45,522	2.5
5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25,382	67.9	기타항공기	26,423	18.6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국 및 수입품목

- (수입국) '23년 독일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네덜란드, 미국,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볼 때, 체코가 벨기에를 제치고 예년과 같이 수입 7위국으로 부상, 브렉시트 이후 對 영국 수입은 '22년 +3.5% 상승세 이후 다시 -6.4%의 하락세를 나타내며, 영국은 수입국 12위 → 13위로 하락
- '23년 對 한국 수입은 147억 달러를 기록하며 +4.3%의 증가세 기록, 순위는 전년 28위 → 25위로 상승하며 예년의 입지 회복, 수입시장 점유율 역시 전년 대비 소폭 증가(0.9% → 1.0%)
- (수입품목) '23년 독일 수입품목은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로 전년도 높은 상승세(+54.6%)를 나타냈던 석유 가스 및 기타 탄화수소 대신 예년의 주요 수입품목이 다시 강세, 이에 5대 수입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 및 역청유(원유),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 팬데믹 완화로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과 전년도 기저 효과로 석유 및 역청유(원유)가 전년 대비 각각 -27%, -12.9% 감소

<독일의 5대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백만, %)

순위	2022년			2023년		
	품목	금액	증감률	품목	금액	증감률
총계	-	1,582,721	11.3	-	1,475,987	-6.7
1	석유가스 및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73,384	54.6	자동차	78,519	14.6
2	자동차	68,516	1.5	자동차부품	46,802	17.4
3	석유 및 역청유(원유)	63,035	56.6	석유 및 역청유(원유)	46,048	-27.0
4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	40,855	0.4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	35,581	-12.9
5	자동차부품	39,857	4.7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32,012	-7.3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3. 한국과의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 (수출) '23년 對 독일 수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U\$103.2억 기록
 - '22년 이래 코로나 팬데믹 완화에 따른 수출 기저효과가 지속되며 농약 및 의약품의 수출 감소세 지속
 - '23년 러-우 사태 및 코로나궂 공급망 병목현상이 완화되며 자동차 부품 수출 개선 및 정부 차원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도에 편승한 전기차 수요 증가세와 더불어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
 - 반면, 반도체 업황 부진 및 가격 하락세에 따른 반도체 수출 및 독일 및 유럽 내 생산 확대 증가 추세로 건전자축전지 수출이 다소 부진
 - '24.3. 누계 기준 對 독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U\$24억을 기록하며 다소 부진한 편이나, 고무제품,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업황 개선에 따른 수출 수요가 성장세 견인
- (수입) '23년 對 독일 수입은 전년 대비 미미한 감소세(0.0%)를 나타내며 U\$236억 기록
 - 코로나 팬데믹 완화에 따른 기저효과로 농약 및 의약품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
 - '24.3.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한 U\$51억을 기록, 반도체 경기 회복세에 따른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반도체 수입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이 소비 수요 둔화의 영향 속 대체로 높은 감소세 시현
- (무역수지) '23년 무역수지는 총 U\$-133억으로 지난 '15년 이래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적자 폭이 소폭 감소
 - '24.3. 누계 무역수지는 수입 감소세와 더불어 U\$-27억으로 예년 대비 소폭 낮은 수준

<한-독일 교역동향>

(단위 : U\$백만,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20	9,576	10.3	20,681	3.7	-11,105
2021	11,110	16.0	21,996	6.4	-10,886
2022	10,068	-9.4	23,615	7.4	-13,547
2023	10,317	2.5	23,611	0.0	-13,294
2024.3	2,406	-1.0	5,063	-17.6	-2,657

자료원 : K-stat

□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 '23년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품 병목현상은 '23.4.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와 더불어 소폭 완화되었으나, 독일 인플레이션 상승세 지속 및 소비·생산 둔화 등에 따른 경기둔화 속 수입 수요 감소 영향과 더불어 한국의 對 독일 수출은 자동차(+62.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10,109%), 고무제품(+34.7%) 등의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소폭의 증가세에 그침
 -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22년 말부터 스마트폰 및 가전 등 하방 산업수요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부진 및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지속으로 감소 폭 확대(-21.6%)
 -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20년 및 '21년 수출 1위로 부상했던 농약 및 의약품 역시 전년에 이어 기저효과가 지속되며 -33.5% 감소세로 수출 5위 기록
 - 한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은 '21년 100%의 감소세 및 '22년 수출이 전무한 데 따른 기저효과, 친환경 선박 부품 수요 확대 추세와 더불어 +10,109%의 급증세 시현
- '24.3 누계 기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10,170%), 고무제품(126.6%), 반도체(57.3%), 무선통신기기(+38.7%) 등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선전 중
 - 자동차와 건전지 및 축전지의 경우 현지 보조금 지급 종료에 따른 수요 감소세와 역내 수급 확대 등의 요인 하 각각 -37.8%, -66.4% 등 높은 감소세 기록
 - 특히 반도체 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수출이 큰 폭의 회복세를 나타내며 한국의 대독일 수출 견인

<對독일 10대 수출품목>

(단위 : U\$백만, %)

순위	품목	2023년		2024년 3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계	10,317	2.5	2,406	-1.0
1	자동차	2,802	62.3	427	-37.8
2	반도체	787	-21.6	241	57.3
3	자동차부품	581	6.9	167	11.0
4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506	10,108.6	166	10,169.6
5	농약및의약품	601	-33.5	148	14.1
6	무선통신기기	471	-24.3	144	38.7
7	합성수지	280	-11.6	102	20.1
8	고무제품	264	34.7	100	126.6
9	건전지및축전지	681	-34.5	72	-66.4
10	기계요소	186	-8.0	56	24.3

자료원 : K-stat

□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 '23년 수입 1, 2위인 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 반도체가 각각 -0.8%, -27.1%, -9.4%를 기록하며 부진한 가운데 그 외 품목군에서는 대체로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
 -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도 전년의 증가세(+8.5%)에 이어 +36.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며, '21년 8위 → '22년 6위 → '23년 3위로 상승
 - 한편, 전년도 감소세를 나타냈던 원동기 및 펌프(-9.7%), 기계요소(-4.2%), 계측제어분석기(-3.6%) 등도 기저효과와 더불어 각각 +20.9%, +15.4%, +9.9%를 나타내며 증가세로 전환
- '24.3. 누계 기준으로는 국내 산업생산 및 경기둔화의 영향 속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 10대 품목이 대체로 높은 감소세 기록
 - 부진한 국내 산업수요 속에서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반도체 수입이 +34.8%, +17.4%를 기록하며 한국의 대독일 수입 견인
 - 수입 1, 2위 품목인 자동차와 농약 및 의약품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수입 감소세의 주요인으로 지목
 - 이 외, 주요 산업 품목군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기계요소의 경우 꾸준한 교체 수요와 더불어 +8%의 증가세 기록

<對독일 10대 수입품목>

(단위 : U\$백만, %)

순위	품목	2023		2024년 3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계	23,611	0.0	5,063	-17.6
1	자동차	6,584	-0.8	1,107	-34.7
2	농약및의약품	1,822	-27.1	446	-23.6
3	반도체제조용장비	921	36.2	301	34.8
4	반도체	1,009	-9.4	289	17.4
5	계측제어분석기	888	9.9	197	-5.2
6	원동기및펌프	749	20.9	193	-1.6
7	기계요소	694	15.4	172	8.0
8	자동차부품	733	5.1	162	-14.3
9	산업용 전기기기	664	10.1	161	-8.5
10	전자응용기기	448	0.6	97	-22.6

자료원 : K-stat

III. 투자 동향

□ 독일의 對 한국 투자

○ '23년 대한 투자 현황

- **(꾸준한 대한 투자 유지)** 독일의 對 한국 투자는 매년 50건 내외, 5억 달러 내외의 투자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23년 투자 규모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독일 Merck사의 272백만 달러 대한 투자가 싱가포르 자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관계로 통계상 미반영된 결과
- **(바이오·화학 산업 투자 확대)** '23년 바이오 제약·화학 부문 투자 확대 및 자동차 부품 관련 투자는 꾸준히 지속
- 韓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 다각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
 - * '23년 주요 투자 사례 : M사 바이오 공정시설 관련 2.7억 달러, S사 바이오 제약설비 관련 2.300만 달러 ('22년 3억 달러 투자에 이은 추가 투자), C사 미래차 부품 공장 확장 관련 4.300만 달러, V사 전동화 부품 생산설비 확장 관련 8.000만 달러, B사 국내 기업 H사와 특수계면활성제 생산 관련 합작법인 투자, S사 국내 기업 D사와 풍력발전 관련 업무협약 체결

<최근 5개년 독일의 대한 투자 추이 (연도별 투자신고 기준)>

(단위 : US\$백만, 건)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고금액	399	517	2,836 (560*)	538	206 (459**)
신고건수	53	51	50	60	47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딜리버리 히어로 22억 7,600만 달러 대규모 대한 투자 제외

** Merck사의 2억 7,200만 달러 대한 투자 포함

○ 대한 투자 전망

- **(독일 경제 역성장으로 인한 투자 둔화 전망)** 에너지 가격 급등, 기록적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으로 인한 '23년 경제 역성장(-0.3%) 및 '24년 낮은 경제 성장률 전망(+0.2%)의 여파로 독일 기업의 전반적 투자 규모 축소 예상
- **(대중국 디리스크링 전략)** 독일 정부는 대중 경제의존도 낮추기에 집중하며,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크링' 전략을 공식화.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 지역 내 독일 기업의 투자 대상 안전장치 강화, 중국의 독일 주요 인프라 투자 감독 강화 예고
- **(ASEAN 국가들과 투자유치 경쟁)** 독일 기업은 대한민국 투자의 어려움으로 한국의 내수시장

감소, 인건비 상승, 공급망 확보 등을 예시로 들. 그렇기에 중국을 대신할 대체 투자처로 내수시장이 크거나, 인건비가 싼 강점이 있는 다른 ASEAN 국가들을 투자처로 모색할 가능성도 有

- BioNTech의 對 싱가포르 바이오산업 투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시아 국가 간의 유치 경쟁이 치열함

□ 한국의 對 독일 투자

- (투자동향) 우리 기업의 對 독일 투자는 총 80억 달러, 887개의 법인 진출
 - 독일의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인하여 '23년 신규법인 설립 전년 대비 12건 감소하였으나, 투자 금액은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
- (진출유형)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판매·영업거점 구축이 주요 목적
 - 유럽 최대 내수시장, 현지 및 한국인 고급 인력 수급 용이성, 한국 및 다른 유럽 국가와의 교통·물류 편리성으로 독일은 판매 및 서비스거점으로서의 강점 보유
- (진출업종) 자동차부품·화학·기계·의료기기 등 제조업 분야 중점 진출
 - 삼성, LG, 현대·기아차,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및 인근에 유럽법인을 설립하여 유럽 시장 성공적 진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
 - 독일 지상사 협회인 재독한국경제인협회(Koebag) 프랑크푸르트 소재
- (최근트렌드) 디지털 및 그린 전환에 따른 독일 내 공급망 재편 가속 → 유럽 역내 GVC 구축 및 현지 거점 확보를 위한 우리 기업의 독일 투자 진출 지속
 - 독일 정부의 배터리셀 유럽 생산허브 구축 목표('30년까지 유럽 전체 생산량의 25% 점유) 등 디지털·그린 전환 정부정책과 연계한 공급망 재편 분야 투자 진출 지속
 - * '23년 삼성물산社와 성일하이텍社의 합작법인 독일 튀링겐주 게라(Gera)에 배터리 재활용공장 설립 투자
 -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독일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 진출도 꾸준히 발생
 - ☞ '20년 7건, '21년 3건, '22년 12건, '23년 6건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대독일 투자 추이 (연도별 해외직접투자통계 기준)>

(단위 : 억 달러, 건)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누계 ('80~'23)
투자금액	2.8	7.2	7.3	3.5	5.1	5.1	80.8
신규법인	43	41	40	32	45	33	88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IV. 지역 현안

□ 정부·산업의 전방위 탈탄소 노력 확산 및 공공투자 집행 본격화

- (그린) EU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동참을 위한 제반 조치 시행
 - * 『Fit for 55(’21.7.)』: ’50년 기후 중립, ’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90년 대비)
 - (독일 정책 목표) (’23.4.) 脫원전 달성 이후 (~’30년) CO₂ ’90년 대비 65% 감축·(~’38년) 脫석탄·(~’45년) 기후 중립
 - * ’24~’27년 투자 규모: €2,118억(건물 리모델링·수소산업 육성·전기차·철도 인프라 등 기후 전환기금(KTF) 예산** 배정)
 - ** ’24.1.22.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23.11. 연방헌법재판소의 예산 운용 위헌 판결(예산 600억 유로 삭감)로 중단됐던 기후전환기금 지원 신청 재개 발표로 자금 지원 정상화 기대
 - (수소 생산 및 인프라 구축) 독일 정부는 ’45년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 생산 및 수입 확대 전략 발표 (’23.7.26.)
 - * ’30년까지 수전해 시설을 두 배 확대, ’28년까지 최소 1,800km 길이의 수소 파이프라인 설치 추진
 - (제반 조치) 신속한 인프라 확장, 기후 보호법 조정, 난방시스템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후 보호 및 계획 가속화를 위한 현대화 패키지’ 결의안 발표 최종 합의(’23.3.28.) 및 기후보호법 개정(’24.4.26.) 신건물에너지법(GEG) 개정안(’23.9.8. 연방의회 승인 및 ’24.1.1. 발효), 기후 중립 생산 전환을 위한 기후보호계약(CCFD, 일명 탄소차액계약제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발족(’23.6.) 및 제1차 입찰 시행(’24.3.12.)
 - (산업계) 탈탄소화 과제 속 철강 및 기계산업계, 저탄소 생산공정 전환에 적극 투자
 - * 잘츠기터(Salzgitter/ 철강), 튀센크루프(Thyssenkrupp/ 철강),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철강), 도이체 포스트(Deutsche Post) DHL/ 우편·물류) DB 쉐커(Schenker/ 물류) 등 탈탄소 선도
- (디지털)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 산업별 DX(Digital Transformation)·5G·클라우드 등 인프라 기반 구축 등
 - * ’22년 총 27개 EU 회원국 중 독일의 디지털 역량 지수: 13위 (’22년까지 발표)
 - 범정부 차원의 협업으로 ’25년까지 공공행정, 의료시설, 교육 등 디지털화 추진 및 18개의 세부 프로젝트(Leuchtturmprojekte)* 추진
 - * △데이터, △디지털 신분증, △온라인 환자 관리 시스템, △국가 온라인 평생 교육 플랫폼, △농촌 지속 가능 디지털화, △AI 분야 스타트업 지원 등
- (공공투자) 지속 가능하고 기후 중립적인 對유럽 투자를 위한 EU 경제회복기금(RRF) 자금 전도 본격화
 - 독일 정부, 총 280.2억 유로(기존 256억 유로에서 확대 신청)의 EU 경제회복기금(RRF) 보조금

- (’24.5 기준) 중 ’26년까지 그린(최소 47%) 및 디지털 전환(최소 48.1%)에 중점 지원 예정
- (기대효과) RRF 기금을 통해 ’26년까지 독일 GDP 0.4~0.7% 증가 및 최대 13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 전망
 - * 아울러 제한적인 재정 정책으로 귀결되는 부채브레이크 개혁 및 계획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조달 가이드라인의 명확화 등의 여부가 차후 공공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에 관건으로 작용 예상
 - ** 독일 IW 경제연구소와 거시경제·경기연구소(IMK)의 새로운 연구 결과, 독일의 미래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6,000억 유로의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는 결론 도출, 특별 기금이나 재정 규칙의 개혁 찬성 (’24.5.15. Handelsblatt)

□ 독일 및 유럽 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편승한 소·부·장 시장 본격 공략 기회

- **(반도체 투자유치)** 독일 정부, 독일 내 반도체 생산 입지 구축에 총 200억 유로(약 29.3조 원) 지원 예정 (~’27년)
 - **(배경) (반도체 자립)** 독일 및 EU 역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 노력에 편승한 시장 진출 기회 모색
 - 유럽 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부재로 해외 파운드리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역내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위한 ‘팹’ 신축에 총력
 - 지정학적 긴장 및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공급망 다각화 및 역내 첨단 생산 입지 구축
 - * 美 인텔(Intel)과 울프스피드(Wolfspeed), 대만의 TSMC 등
 - ** 독일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Infineon) 역시, ’23.5. 50억 유로(약 7조 원)를 투자, 동부 드레스덴(Dresden)에 팹 착공, ’26년 이후 전력반도체와 아날로그 반도체 등 생산 예정
- **(EU 반도체법)** EU 집행위, ’30년까지 해외기업의 역내 투자유치와 ’30년 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20% 역내 생산(현 약 10%)을 목표로 반도체법 발효(’23.9.21), 총 430억 유로 투자
- **(기대효과)** 독일의 반도체 산업 입지 구축에 일대 전기 마련, 독일 및 EU 역내 미래 반도체 산업 생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진일보
 - * 지원되는 독일 기업은 연구 개발, 생산시설 등에 수백억 달러의 추가 민간 투자를 할 것으로 추정, 동시에 국가 프로젝트는 4,000개 이상의 직접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자료원 : ’23.6.8. Handelsblatt)
- **(우리 기업 시사점) (소·부·장 수요)** 보쉬(Bosch), 인피니언(Infineon), 인텔(Intel), STM, 울프스피드(Wolfspeed) 등 유럽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독일 생산시설 건립이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기회 발생 및 소재, 부품, 장비 수요 증가 전망
 - * 현재 독일 내 설립계획에 있는 팹 공장은 EU 반도체법 도입으로 인해 대규모·고속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장 내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하는 다양한 아이템은 글로벌 기업에게서 납품을 받아야

하는 상황

**** 독일 및 유럽 소재/ 진출 반도체 기업과의 잠재 협업 유망분야 관련 KOTRA 2024 독일 진출전략 참고 요망**

- 유럽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로 직결,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유럽 시장진출 확대 적기, 유럽 내 파운드리 공장 준공과 관련한 반도체 장비 구매 프로세스 사전파악 및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수출 기회 발굴이 중요

□ 공급망 위기로 인한 對중국 정책 기조 변화 : 디리스크(Derisking) 전략 및 원자재 공급 지원 강화

- **(공급망 다각화)** 코로나 팬데믹과 러-우 사태를 거치며 전반적으로 구조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생산성 둔화, 저성장, 원자재 문제, 공급망 혼란 및 脫글로벌화 부상
 - 특히 독일은 공급망 혼란 속 쏠림 현상의 위험을 자각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우선
 - * 독일 하베크(Robert Habeck)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에너지 위기가 경제·사회 위기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 ('22.9.30. Handelsblatt)
 - (위기의식) 최근 독일은 중국의 독일 첨단기술 노하우 획득을 위한 접근에 경계
 - * IW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2년 중국의 독일 라이선스 수입은 '1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특히 '20 ~ '22년까지 약 50% 증가 ('23.8.9. Handelsblatt)
- **(對 중국 의존도 감축)** 솔츠(Scholz) 내각, 이전 정부와 대비되는 '디리스크' 對 중국 전략 (Strategy on China)' 추진 ('23.7.13.)
 - * '22.11.17. 독일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 독일과 EU 역량 강화, 경제 및 정치적 파트너십의 다각화'에 주안점을 둔 대중 전략 초안 발표
 - 솔츠(Olaf Scholz) 총리 및 독일경제·기후보호부는 對 중국 정책은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니라, 디리스크(Derisking)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임을 강조
 - 적극적인 원자재 정책 추진, 원자재 파트너십 확장, 대체공급선 확보, 물류 안정화 등 공급망 자립 및 전방위 산업 내 공급망 다각화 노력 경주
 - 獨 5G 인프라 사업(특히 보안) 내 중국 기업 비중 축소 및 배제 본격화 양상
 -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리스크 관리 취지에 동의하나 실제 추진 방안에 신중한 접근 촉구
 - * '24.4. 독일 지멘스(Siemens), 지난 50년 넘게 구축된 글로벌 밸류체인이 단기간 내 바뀔 수 없으며, 독일 기업의 중국 의존도는 수십 년 지속될 것이라 경고, '24.4.13~16. 솔츠(Olaf Scholz) 총리는 방중 일정 중 '공평한 경쟁의 장'을 강조하며, EU의 징벌적 관세 위협에 대해 비판적 입장 표명, 함께 방중한 경제사절단 대표 역시 중국이 보복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고 우려, 이는 특히 독일 제조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 **(선제 대응)** 원자재 공급망 안정을 위한 원자재 기금 도입 추진 ('24년~)
 - '23.7. 독일 하베크(Robert Habeck)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24년부터 약 10억 유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원자재 기금 도입 추진
 - * '23.8.1.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반도체 핵심 원료) 수출 허가제 시행 등에 의해 높은 원자재 의존도에 대한 우려 증가, 독일산업협회(BDI)에 따르면, 독일에서 수입되는 갈륨의 75%, 게르마늄의 65%가 중국산이며, 바흐터(Matthias Wachter) 부사장은 “중국의 많은 비 에너지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는 이미 러시아의 가스에 대한 의존도보다 더 높다”라고 지적하며 ‘다각화와 새로운 역량 개발의 필요성’ 강조 (자료원 : '23.7.27. Handelsblatt, '24.3.13. Focus)
 - 기금은 독일 연방정부의 자기자본을 활용한 원자재 프로젝트 참여와 특별 기후전환기금(KTF)으로 충당 예정
 - EU 역시 '24.5.23. 핵심 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제정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효,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 재활용 촉진 추진
 - * CRMA(Critical Raw Material Act) : 원자재 역외의존도 완화를 위해 핵심·전략원자재 목록을 선정하고 역내 생산 역량 확대,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요건 등을 강화한 법안
 - 해당 법의 일환으로 역내외 전략 프로젝트(Strategic Project) 선정을 통해 허가 간소화, 자금조달 등을 지원 예정
 - * 아울러 EU는 당초 경쟁 왜곡 및 소비자 이익 훼손 우려로 공공 보조금을 엄격히 통제 중이나, 미국 및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정책에 대해 전향적 입장 선회 중
- **(우리 기업 영향)** 중국 전략 실현을 위한 독일 정·재계의 향후 활동 주목 및 영향 분석 필요
 - 현재 독일의 對 중국 전략 기조 변화와 더불어 전방위 산업 및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 및 재편 등에 대한 관련 동향 추이 모니터링 필요
 - *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독일 정부의 강경한 방침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혜택을 받을 것, 독일 경제·기후보호부가 선언한 목표는 인도, 베트남, 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와 독일 기업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 ('23.10.19. Deutsche Welle)

□ '35년 EU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관련 찬반 논쟁 및 속도 조절론 대두

- EU,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에 합의 및 신규 상용차 CO₂ 배출량 규제 추진 중 ('23.3.),
 - *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Fit for 55 패키지' 차원에서 자동차(승용차와 3.5~7.5t의 소형상용차)의 CO₂ 배출 규제안에 대한 3자 합의('22.10.) 및 '35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최종 결정 ('23.3.28. EU 27개 회원국 합성연료(E-Fuels) 예외 조항을 포함한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최종 승인)
 - 이어 '24.4.10. 유럽의회, 대형화물차 및 버스 CO₂ 배출규제(CO₂ 배출량 '19년 대비 '30년 45% → '35년 65% → '40년 90% 감축) 법안 승인 및 '24.5.14. EU 이사회 승인

- 합성연료(E-Fuels) 사용 차량에는 예외적으로 판매를 허용, '24년 가을경까지 E-Fuels 차량의 범위 및 구체적 세부 사항 관련 결정 예정

* EU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26년 내연기관의 폐지 재검토 강조, '26년 제로 배출 목표에 대한 재평가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 세부 사항은 여전히 조정 가능 예상

○ 독일 자동차협회(VDA), 해당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 VDA 뮐러(Hildegard Müller) 회장은 내연기관 분쟁에서 연방정부와 EU 집행위 간의 합의를 '기후 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이해, "우리는 EU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기후 친화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

- 기업별로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지지

* (완성차) Porsche·BMW (Tier1) Bosch·ZF·Mahle 등

○ 최근 '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관련 찬반 논쟁 및 속도 조절론 부상

- 독일 자동차 전문 매거진 Automobilwoche, EU의 '35년 내연기관차 전면 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 이슈화 ('24.4.3.)

- **(Contra)** EU는 전기차 전환에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무조건 '35년의 기한을 고수하는 것은 산업 정책적으로 불합리

* EU의 '35년 내연기관차 전면 금지는 공급망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계획으로, 전기차에 대한 낮은 수요는 소비자가 여전히 전환을 주저하고 있음을 방증, 충전 시간·주행거리·충전 인프라·가격이 적당하면 소비자는 스스로 이를 선택할 것

** '23년 독일 자동차 시장의 순수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는 +11.4% 증가하였으나, '24.3. 누계 기준 여전히 시장 점유율은 3% 미만('23년 2.1%) (자료원 : 독일연방 도로교통청(KBA))

*** Automobilwoche의 분석에 따르면, 수요 약화로 올해 전기차 신규 등록 건수는 '23년(약 52만 대)에 비해 약 1/3 정도 감소한 35만 대 예상, 이는 '21년 수준에 해당 ('24.5.14.)

- **(Pro)** 모빌리티의 탈탄소화는 불가피하며, 경쟁사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다음 통합 단계의 생존자가 될 것

* 전기차 경쟁은 세계적인 현상, 배터리 기술과 생산비용의 핵심 요소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 향후 경쟁력 상실 우려

- 최근 독일 주요 완성차 기업 역시 '35년 내연기관차 퇴출 연기 계획 움직임

- **(주요 요인)** ① '23.12. 전기차 구매보조금 조기종료로 업계 매출 부진 급격 가속화, ② 충전 인프라 충분 여부 등 전기차에 대한 확신 부족, ③ 저가 전기차 모델이 다양하지 못한 상황 등으로 '30년 독일 정부의 전기차 보급 1,500만 대 달성 목표 적신호

- (메르체데스-벤츠) CEO 칼레니우스(Ola Källenius), 최근 EU 내연기관의 종료 일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 표명,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28년부터 전기차 전환 전략 목표 수정, '30년 대까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모두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 ('24.5.13 Automobilwoche)

* "변화의 속도는 시장 상황과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히고, "충전 인프라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하며, '30년까지 순수 전기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Mercedes의 약 50%만 차지할 것이라고 가정하며 구체적인 목표도 수정 발표 ('24.5.8.)

- ** 아울러 EQS, EQE 후속 모델을 위해 특별 설계된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MB.EA-Large)* 개발을 전면 중단 ('24.5.13.)
- BMW도 '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지속 생산 계획
 - * 모델 시리즈의 전기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나, 내연기관차의 종료 일자를 확정하지 않고, 시장이 있는 한 기술을 제공한다는 입장 ('24.4.5.)
- ** BMW CEO 칩제(Oliver Zipse), EU의 '내연기관 차량 금지' 시행 방안 관련 제안 및 중국산 전기차 대상 고관세 부과 계획에도 회의적인 의견 표명, 유럽의회 선거 이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24.5.8. Automobilwoche)
- 한편 폴크스바겐(VW)은 '35년 내연기관 단계적 폐지 계획 유지, CEO 블루메(Oliver Blume), “E-모빌리티는 짧은 시간 안에 내연기관보다 뛰어난 기술이 될 것”으로 낙관
 - * 단 CEO 블루메는 '35년 기한을 앞두고 CO₂ 차량 배출량에 대해 “현실적으로 시차를 둔 목표”를 요구 ('24.3.13.)

- **(우리 기업 영향)** 독일 자동차 업계의 탄소 중립 속도 가속화 추세에 따른 전동화 전략에 편승한 친환경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시장 판로 개척과 동시에 차후 EU의 협의 과정과 입법 절차 예의주시 및 적절한 대응 방안 강구 필요

□ EU 지속 가능한 기업 실사 지침(공급망 실사지침,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CSDDD) 발효 임박

- * (참고사항)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차후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돼 효력 발생 예정, 독일은 이미 '23.1. 이래 자체적으로 공급망실사법 시행 중

- **(배경)** 환경 및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기업의 ESG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제고

- **(현황 및 전망)** '24.4.24. EU 의회 승인, 지침 발효 예정(발효 후 적용 기간 3~5년)

- EU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 예정이며, '27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에 적용될 예정
- * '23.6.1.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공급망 실사 지침 승인, EU 이사회 최종 승인('24.5.24.) 후 관보 게재('24.6.말 전망) 및 발효('24.7. 전망)

- **(실사 대상)** 업스트림 및 일부 다운스트림(재활용, 폐기 등)

- * 공급망(Value chain) 범위를 생산, 공급, 유통, 운송, 저장 및 폐기로 지정하고 제품·서비스 사용 단계의 다운스트림 제외
- **(적용 시점)** 발효 2년 후(국내법 전환), 기업 적용 기준에 따라 3~5년 단계별 적용 예정
- * 세부 정보는 KOTRA 해외시장뉴스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유럽의회 최종 통과’](#) 자료 참고 요망
-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EU 내 기업들은 공급업체에 높은 수준의 인권과 환경

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독일은 이미 '23년부터 공급망 내 인권 보호와 환경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 :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시행 중
 - 기업에 인권, 환경 등 관련 위험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을 실사해야 하는 의무 부과
 - **(주요 내용)** ① 기업 실사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기업 자체 사업 영역, 직·간접 공급기업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최초 포함, ②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 ③ 관할 기관에 의한 외부 모니터링, ④ 인권 보호 강화, ⑤ 사람/환경 유해 물질 사용 규제
 - 기업의 리스크 관리 의무는 ① 기업의 자체 사업영역, ② 직접 공급업체, ③ 간접 공급업체에 적용
 - EU 공급망 실사지침이 발효될 경우 EU 지침이 적용 우의, 다만 EU 지침은 실사 의무 및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돼 해당 기업에 직접 적용

<EU 공급망 실사지침과 독일 공급망 실사법 적용 대상 기업 및 주요 내용 비교>

구분	EU		독일
적용 대상 기업	직원 수 1,000명 초과, 전 세계 순매출액(전년도 기준) 4억 5,000만 유로 초과 EU 기업 및 그 모기업 * 최종 법안의 적용 대상기업은 약 5,000 개사로, 기존 합의안 대비 70%가량 축소 EU 역내 순매출액(전전년도 기준) 4억 5,000만 유로 초과 역외 기업 및 그 모기업		독일 소재 기업(외국 기업 포함)
직원 수 기준	역 내	(일반) 발효 3년 후('27년): 직원 수 5,000명 초과 4년 후('28년): 직원 수 3,000명 초과 5년 후('29년): 직원 수 1,000명 초과 (로열티 수익) 상기 적용 기준(직원 수, 매출액)에는 미치지 않으나, 다음의 2개 기준(①+②)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① 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 초과 ② 세계 순 매출액이 8,000만 유로 초과	2023년 독일 내 직원 수 3,000명 이상(900여 개), 2024년 독일 내 직원 수 1,000명 이상(4,800여 개), (자료원 : 에너지·기후보호 재단)
	역 외	직원 수 기준 별도 언급 無 (로열티 수익) 상기 적용 기준(매출액)에는 미치지 않으나, 다음의 2개 기준(①+②)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① 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역내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를 초과하고 ② EU 순매출액이 8,000만 유로 초과	별도 기준 無

매출 기준	역 내	발효 후 3년: 세계 순 매출 15억 유로 초과 4년 후: 세계 순 매출 9억 유로 초과 5년 후: 세계 순 매출 4억 5,000만 유로 초과	별도 기준 無
	역 외	발효 후 3년: EU 역내 순 매출 15억 유로 초과 4년 후: EU 역내 순 매출 9억 유로 초과 5년 후: EU 역내 순 매출 4억 5,000만 유로 초과	
금전적 제재	실사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순 매출 기준 금전적 제재 부과 최대한도는 전 세계 순 매출의 5% 이상		최대 80만 유로/ 연 매출 4억 유로 초과 기업의 경우 연평균 매출의 최대 2%(기준 3개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 기준) 과태료
민사 책임	민사 책임 부과		無

* 주 : KOTRA EU 주간 브리핑 및 KOTRA 보고서 '[쉽게 이해하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 FAQ](#)'

- (우리 기업 시사점) 공급망 내 인권 침해 리스크 검토 및 유럽 협력사의 높은 인권, 환경 기준 요구에 대비 필요, 국내 대기업의 경우 협력사의 관리 지원 등의 조치 필요
- * 실사 관련 증빙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 필요하며, 역외기업은 관할 당국과 접촉할 수 있는 EU 역내 대리인 지정 필요
- 매출액 4억 5,000만 유로 초과의 직접 적용 대상기업이 아니어도, 인권·환경 의무 준수가 해당기업에 대한 공급기업(Supplier)으로서의 주요 조건으로 부상

□ 독일 내 한류 인지도 확산에 따른 K-상품 수출 편승효과

- (포스트 코로나) 고물가에 따른 소비 둔화 속 오프라인(Offline) 시장의 귀환 및 소비 양극화를 비롯한 엔데믹 소비문화 확산
- (주요 소비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를 재평가해 새로운 소비 패턴 부상, 의식적 소비(예; 지속 가능 소비)·지속가능성·AI·다기능(하이브리드 제품) 선호·공유문화(임대, 구독(Abo)과 재활용) 등 엔데믹 소비문화 보급 확산
- 특히 고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고품질,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 신뢰도 상승
- * 브랜드 품목 대신 저렴한 PB 제품 인기, 독일 소비자의 76%가 쇼핑 시 제품 가격에 주의, 전년 대비 +8% 증가 (자료원 : Bring! Magazine)
- (소비의 N극화) 경제 양극화 및 취향 차이 심화로 짠테크와 과시형 소비 또는 저가 제품과 프리미엄 시장이 공존
- (한류 마케팅) 독일 내 한류 소비 증가 추세를 대독일 수출의 기폭제로 활용 기대
- 지역 내 주요 행사에 편승한 한류 마케팅도 활기, 특히 수출 초보기업의 시장 진입에 긍정적 효과

-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독일 내 한류 인기 확인
- * '23.6.29~30. KOTRA 한류박람회(KBEE 2023: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2023)에서 신규 수출·수출 초보 기업 성과 도출, 10건의 MOU 체결 및 B2B 1:1 수출상담회를 통해 188억 원 규모의 계약 성사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 **(수출 다변화)** 대독일 시장 진출을 위한 한류 콘텐츠 발굴 및 수출 다변화 적기 및 진출 방식 다각화 기회
 - * K-뷰티 중심 → 코로나19를 기점으로 K-방역으로 확산 → K-패션, K-화장품, K-식품, K-굿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수출 효과 창출
 - 다양한 K-콘텐츠 수출화 전략 및 브랜딩 강화, 현지 맞춤형 전략 집중 필요
 - **(진출 방식 다각화)** 온라인을 위시해 자체 지점 또는 프랜차이즈 등 진출 방식 및 진출 분야 확대를 위한 분기점 기대
 - 또한 아마존*을 중심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Zalando(의류 및 잡화류), Douglas(화장품) 등 로컬 온라인 유통망 입점 및 K-뷰티 화장품 전문 포털을 통한 시장 판로개척도 다시 활기
 - * 아마존 코리아의 [아마존 유럽 입점 안내 자료](#) 참고, '23년 KOTRA 뮌헨 주관 '아마존 독일 마켓 플레이스 활용 사업'을 통해 지원기업 수 128개 사, 신규입점 14개 사, 수출 초보기업 11개 사, 매출 595만 달러 등의 성과 (자료원 : KOTRA 뮌헨 무역관)

V. 관할지 및 산업 안내

함부르크 무역관 관할지 정보

◆ 16개 독일 연방주 중 북부지역 10개 주 관할

관할주	주기(州旗)	주도(州都)	비고
함부르크 Hamburg		-	자유한자도시 Freie Hansestadt
베를린 Berlin		-	연방수도
브레멘 Bremen		-	자유한자도시 Freie Hansestadt
슐레스비히-홀슈타인 Schleswig-Holstein		킬 Kiel	-
니더작센 Niedersachsen		하노버 Hannover	-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포츠담 Potsdam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슈베린 Schwerin	-
작센 Sachsen		드레스덴 Dresden	구 동독령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막데부르크 Magdeburg	
튀링겐 Thüringen		에어푸르트 Erfurt	



* 함부르크, 베를린, 브레멘은 주이면서 시

◆ 관할주 세부 정보 (1인당 GDP 순)

관할주	인구 (천명)	GDP (십억 유로)	1인당 GDP (유로)	對한 수입 (천 유로)	對한 수입 비중 (%)
함부르크	1,892	150.982	79.179	715,408	0.96%
브레멘	685	39.252	56.981	35,912	0.20%
베를린	3,775	193.219	51.209	56,083	0.28%
니더작센	8,140	363.109	44.531	756,770	0.58%
슐레스비히-홀슈타인	2,953	118.680	40.090	270,782	0.79%
작센	4,086	155.575	38.143	177,851	0.49%
브란덴부르크	2,573	97.447	37.814	105,081	0.42%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1,628	59.217	36.335	94,730	1.03%
작센-안할트	2,186	78.380	35.911	324,500	1.36%
튀링겐	2,127	75.909	35.715	105,239	0.55%
독일 전체	84,359	4,122.210	48.775	13,564,708	0.99%

주: 인구(2022년 기준), GDP, 1인당 GDP, 對한 수입 (2023년 기준),

자료원: 독일연방통계청, 주정부 통계청

□ 함부르크 (산업 상세 내용은 [북독일 훑아보기 1편](#) 및 [2편](#) 참고)

- 주요 산업 : 조선·해양산업, 해운산업, 항공산업, 풍력발전업 등
 - 함부르크항은 엘베강 하류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독일 최대규모의 항구로, '22년 컨테이너 물동량 830만 TEU 기록
 - 하팍로이드, 퀴네앤드나겔, 헤르메스 등 세계적 해운 물류사와 에어버스, 루프트한자 테크닉 항공우주 기업 소재
- 현지 진출 국내 기업 : HMM, 한국 선급 등 해운 물류, 조선기자재 중심

□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 주요 산업 : 전 세계 스타트업 중심지로 핀테크, IT 및 제약 산업 발전
 - 화이자, 바이엘(R&D) 등 중심의 제약 산업은 베를린 최대 매출 산업('22년, 88억 유로)
 - 유럽 스타트업 중심지로 N26(핀테크), 오미오(여행 플랫폼) 등 다수 유니콘 기업 소재
 - 브란덴부르크에는 테슬라 기가 팩토리 설립 완료(유럽 최초), 아마존 AWS 및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투자 예정
- 현지 진출 국내 기업 : 한화 큐셀, 씨유 메디컬, 이지룩 아시아 등 스타트업 위주

□ 작센 안할트

- 주요 산업 : 반도체, 화학산업, 생명 과학 기술
 - 인텔은 '23년 300억 유로를 투자 마그데부르크에 반도체 생산 공장 설립 발표
 - 바스프(생산), 토탈 등 화학 기업 소재
- 현지 진출 국내 기업 : 한화큐셀(R&D 본부), 한국타이어(물류센터)

□ 작센

- 주요 산업 :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 마이크로 산업 발달
 - 실리콘 작센(반도체 클러스터) 소재 및 인피니온 테크놀로지, 로버트 보쉬 등 생산 공장 입지
 - TSMC는 '23년 100억 유로를 투자하여 드레스덴에 반도체 생산 공장 설립 계획
 - 폭스바겐, BMW, 포르쉐 등 완성차 기업 생산 공장 소재
- 현지 진출 국내 기업 : 노발레드(삼성SDI 자회사), 서닉 시스템, 한 배콤 등 벤처기업

□ 튀링겐

- 주요 산업 : 광학, 광전자, 의료기기 등 정밀기계산업 발달
 - 칼 차이스 메디텍(의료기기), 옴닉(광학) 등 글로벌 기업 소재
- 현지 진출 국내 기업 : 없음

□ 니더작센

- 주요 산업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폭스바겐 중심으로 콘티넨탈, 로버트 보쉬 등 자동차 부품 글로벌 Tier 1,2 기업 포진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종사자는 총 25만 명으로 인구의 30% 이상
- 현지 진출 국내 기업 : 한국타이어(연구소 및 영업본부)

□ 쉘레스비히-홀슈타인

- 주요 산업 : 풍력 터빈, 해양 생명 공학 등 해양 산업 중심
 - 440개 해상 풍력(offshore) 터빈이 가동 중이며, 7,800 MW 생산
 - 1,000개 이상의 기업 및 협회 소재
- 현지 진출 국내 기업 : 없음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

- 주요 산업 : 조선, 풍력 등 해양 산업 중심
 - MV 베르프트(MV Werft), 넵툰 베르프트(Neptune Werft) 등 독일 전통 조선사 소재
 - 육상 및 해상풍력으로 4,500 MW 생산
- 현지 진출 국내 기업 : 없음

□ 브레멘

- 주요 산업 : 항공우주, 해운 물류
 -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방위산업) 및 OHB SE(탐사용 우주 비행체) 소재
 - 브레머 하펜은 독일 제2항구로 '22년 컨테이너 물동량 460만 TEU 기록
- 현지 진출 국내 기업 : 없음

VI. 독일 방문 및 체류 시 참고사항

1. 독일 방문 관련 안내 사항

□ 입국절차

- 한국과 독일 간 비자 협정에 의해 3개월 이하 체류 시 비자가 불필요하며, 입국 시 출입국신고서나 세관신고서 등 일체의 서류를 작성 불요
- 입국 심사대는 EU 시민용 창구와 외국인 창구가 나뉘어 있으며, 입국 심사대에 여권만 제시하고, 입국 심사관이 질문 시 이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됨
- 세관신고서 양식은 없으나 일정 기준의 세관 규정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세관 신고 의무
 - * 비EU 개인 여행자의 항공 및 선박 여행 시 최대 430유로(만 15세 미만 여행자의 경우 최대 175유로)에 해당하는 물품
 - 수하물을 찾은 후 통과 시 일부 여행객의 수하물을 검사를 시행하기도 함

□ 공항 안내

- 인천에서 함부르크로 오는 직항 노선은 없으며, 한국에서 독일 입국 시 대부분 프랑크푸르트나 뮌헨 공항으로 입국하여 환승
- 함부르크 공항에서는 S-Bahn(S1)을 타고 시내로 이동 가능. 중앙역까지 약 20-30분 소요
 - 공항에서 렌터카 대여도 가능하며, 택시는 중앙역까지 약 30-40유로 소요

□ 생활정보

- 기후
 - 독일 기후는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의 중간형
 -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크며, '23년 연평균 기온은 10.6° 기록
 - 한국과 유사하게 사계절이 있으나, 한국보다 기온이 대체로 낮으므로 출장 시 좀 더 따뜻한 복장 준비 필요, 봄, 가을, 겨울에 비가 자주 오는 편이며, 여름에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므로 긴팔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 교통

- 버스, 트램(Strassenbahn), 지하철(U-Bahn), 고속지하철(S-Bahn) 등이 있으며, 지역별로 종류와 가격이 다르나 대개 약 2~5유로선으로 한국 대비 비싼 편
- * 한국과 같이 한번 티켓을 구매해 지하철에서 버스에 환승 가능하나, 시간제한이 있으므로 유의
- (운행시간표) 대부분 지하철/버스 운행시간이 시간대별, 요일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교통 티켓 구매) 중앙역, 각종 기차역 및 정거장에서 구입 가능하나, 티켓 판매대가 없는 곳이 많아 HVV 앱(함부르크 교통앱)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
- (교통티켓 가격 및 종류) 1회용 기본 티켓은 3.8유로이나 HVV 앱 사용 시 3.53유로이며 이 외에 데일리 티켓, 주간 티켓, 그룹 티켓 등 다양하게 있음
- (택시) 기본 요금은 6유로이며, 1km당 약 2.7유로씩 추가. Freenow나 myTaxi 등 앱 이용 가능. 간혹 카드가 안 되는 경우 있으니 현금 구비 추천

○ 전화

- 일반 대중 전화기를 이용해도 좋으나, 유심칩과 선불(Pre-paid)카드를 구매해 한국 휴대폰에 장착해 사용하는 것이 편리, 이 경우 인터넷 데이터도 활용 가능
- 선불카드는 인터넷이나 Deutsche Telekom 계열의 T-Mobile을 비롯하여 Vodafone, e-Plus, O2 등의 지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dm(드럭스토어)이나 Aldi(슈퍼), Lidl(슈퍼) 등에서도 구매가 가능 (단, 경우에 따라 현지 주소를 요청하므로 유의)
- 출장 또는 여행자의 경우 국내에서 사전 구매해 유럽 내 바로 개통이 가능한 유럽 유심을 미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

○ 환전

- 공항이나 주요 은행지점에서 가능하며, 은행별로 수수료에 차이가 있음
- 코메르츠 은행(Commerzbank),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Sparkasse(저축은행) 등을 활용 가능

○ 전압

- 독일의 전기 규격은 50Hz, 230V로 대부분의 한국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나, 모터가 들어간 일부 제품(세탁기, 냉장고, 헤어드라이어 등)은 고장이 날 우려가 있음
- TV와 비디오 레코더는 우리나라의 NTSC 방식과는 달리 PAL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멀티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 불가

○ 시차

- 독일에서는 서머타임(Summer-time)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과 10월 마지막 일요일 새벽 2시에 시간이 조정됨
-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이후는 서머타임으로 한국과의 시차가 7시간,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이후에는 8시간 차이

□ 문화적 유의사항

○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계획성, 합리성 추구

- 독일 기업은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고, 한번 신뢰가 형성된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 미국과 달리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대부분 정장을 입고,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몇 주 전 약속을 잡아야 만날 수 있는 등 보수적인 면이 강한 편
- 계획성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강해 충동구매 가능성이 적으며 사실(fact) 위주의 의사결정

○ 목적을 사교보다 더 중요시

- 독일인들은 스몰토크(small talk)가 적은 편이며,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 목적 달성 추구
- 미팅 전 상대방의 상품 및 기업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
- 철저히 객관적인 자료 및 정보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상품을 홍보하기 보다는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 지나친 접대는 지양

- 독일 기업의 윤리경영은 국내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내 방문 시에 지나친 접대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VII. 함부르크 및 베를린 주요 장소 안내

□ 함부르크(Hamburg)

○ 식당·식품점 정보

[한식]

한미 (Hanmi) - 주소: Kleine Seilerstr. 1, 20359 Hamburg - 전화번호: +49 40-7801 0777	* 지하철 U3 St. Pauli 역 근처 * 가격: 점심 9유로
김치가이스 (Kimchi Guys) - 주소: Große Bleichen 35, 20354 Hamburg - 전화번호: +49 40-3496 0088	* 지하철 S3 Stadthausbrücke역 근처 * 김밥, 치킨, 비빔밥 등 판매 * 가격: 점심 7-9유로/11.9-19유로
김치 (Kimchi) - 주소: Heussweg 10, 20257 Hamburg - 전화번호: +49 40-493871	* 지하철 U2 Osterstraße 역 근처 * 가격: 점심 7.5-9.5유로/6-50유로
서울 1988 (Seoul 1988) - 주소: Karolinenstr. 1, 20357 Hamburg - 전화번호: +49 40-3348 4151	* 지하철 U2 Messehallen 역 근처 * 메뉴: 김치찌개, 부대찌개

[한국식료품점]

Mipoong Asia Markt - 주소: Rosenstraße 2, 20095 Hamburg - 전화번호: +49 40-324431	Asia Supermarket - 주소: Barmbeker Markt 37, 22081 Hamburg - 전화번호 : +49 40-297188
Asiatische Lebensmittel KIM - 주소: Mundsburger Damm 39, 22087 Hamburg - 전화번호: +49 40-222 031	Seoul Market - 주소: Grindelallee 130, 20146 Hamburg - 전화번호: +49 170-275 4547

[독일식]

Groeninger Restaurant - 주소: WillyBrandt Straße 47, 20457 Hamburg - 전화번호: +49 40-33 13 81	* 독일 300년 전통 호프식당 * 사전 예약 필수
Old Commercial Room - 주소: Englische Planke 10; 20459 Hamburg - 전화번호: +49 40-366 319	* 함부르크 전통 레스토랑 * 아이스바인 (Eisbein : 절인 돼지 정강이 요리), Wiener Schnitzel 추천
Hofbräu Hamburg - 주소: Esplanade 6. D-20354 Hamburg - 전화번호: +49 40-34 99 38 38	* 호프식당, 시내 위치 * 라이브 밴드가 있는 전통 독일 맥주집/식당

Rheinische Hafen - 주소 : Stadthausbruecke 3, 20355 Hamburg - 전화번호 : +49 40-3600 6001	* 독일 중서부 전통 레스토랑
Brauhaus Joh. Albrecht - 주소 : Adolfsbrücke 7, 20457 Hamburg - 전화번호 : +49 40-367740	* 무역관에서 도보 10분 거리

[햄버거]

Dulf's Burger - 주소: Karolinenstraße 2, 20357 Hamburg - 전화번호 : +49 40 4600 7663	* 함부르크 Winterhude 지역 유명 버거 맛집
Peter Pane - 주소 : Schäferkampsallee 1, 20357 Hamburg - 전화번호 : +49 40 4162 3667	* 버거 전문 체인점으로 함부르크 시내에 4개 지점 오픈
Burgerlich - 주소 : Speersort 1, 20095 Hamburg - 전화번호 : +49 40 3571 5632	* 시내 쇼핑중심가 근처 * 식탁에 테이블 PC를 설치, 고객이 직접 주문하는 방식

◇ 햄버거(Hamburger)와 함부르크(Hamburg)

‘햄버거’의 어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함부르크’에서 ‘햄버거’가 유래했다는 가설이 유력함. 기존에 함부르크 사람들이 호밀빵에 썰어서 다진 고기를 끼워 먹었고, 미국에 건너간 함부르크 출신 이민자들이 이를 유행시켰다는 주장임. 1904년 세인트루이스 세계박람회에서 썰어 다진 고기를 ‘Hamburg’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고 함.

[기타]

Stricker's Kehr Wieder Spitze - 주소: Am Sandtorkai 77, 20457 Hamburg - 전화번호 : +49 40 4600 7663	* 독일 퓨전 요리 * 하펜시티 서쪽 끝에 위치, 함부르크항 전망 가능
LA VITE - 주소 : Heimhuderstr. 5, Hamburg - 전화번호 : +49 40-458 401	* 이탈리아 식당
FISCHclub Blankenese - 주소 : Strandweg 30a, 22587 Hamburg - 전화번호 : +49 40 869 962	* 함부르크 서쪽 Blankenese 마을 강변에 위치한 생선요리 전문점

○ 호텔 정보

분류	호텔명	주소	전화번호
5성급	Grand Elysée Hamburg	Rothenbaumchaussee 10, 20148 Hamburg	040 414120126
	Steigenberger Hotel Hamburg	Heiligengeistbrücke 4, 20459 Hamburg	040 368060
	Hamburg Marriott Hotel	ABC-Str. 52, 20354 Hamburg	040 35050
	SIDE Hamburg	Drehbahn 49, 20354 Hamburg	040 309990
	Renaissance Hamburg Hotel	Grosse Bleichen, 20354 Hamburg	040 349180
	The Westin Hamburg	Platz der Deutschen Einheit, 20457 Hamburg	040 8000100
	Fraser Suits Hamburg	2 Roedingsmarkt, 20459 Hamburg	040 3808636888
4성급	Renaissance Hamburg Hotel	Grosse Bleichen 20354 Hamburg	040 34918968
	Adina Apartment Hotel Hamburg Michel	Neuer Steinweg 26, 20459 Hamburg	040 2263500
	Citadines Michel Hamburg	Ludwig-Erhard-Straße 7, 20459 Hamburg	040 3006180
	Hotel Europaeischer Hof Hamburg	Kirchenallee 45, 20099 Hamburg	040 248248
	Radisson Blu Hotel Hamburg	Congressplatz 2, 20355 Hamburg	040 35020
	Holiday Inn Hafencity Hamburg	Ueberseeallee 15, 20457 Hamburg	040 32503850
	Ruby Lotti Hotel Hamburg	1-3 Duesternstrasse, 20355 Hamburg	040 696322890
3성급	IntercityHotel Hamburg Hauptbahnhof	Glockengiesserwall 14/15 20095 Hamburg	040 248700
	Intercity Hamburg Dammtor-Messe	St. Petersburger Straße 1, 20355 Hamburg	040 6000140
	Hotel Ibis Hamburg City	Amsinckstrasse 3, 20097 Hamburg	040 3099860
	Motel One Hamburg am Michel	Ludwig-Erhard Str. 26, 20459 Hamburg	040 35718900

○ 시내 쇼핑 정보

<p>명품 거리 (BOSS, Jil SANDER, Hermes, Gucci 등) 거리명 : Neuer Wall (노이어 발) * Jungfernstieg역 또는 Rathaus역에서 하차</p>
<p>백화점 Galeria 거리명 : Mönckebergstraße 16 * WMF, Silit 등 주방용품, 가방 등 구입 가능 * Jungfernstieg역 또는 Rathaus역에서 하차</p>
<p>백화점 Alsterhaus 거리명 : Jungfernstieg 16-20 * Karstadt과 같은 백화점 브랜드이나 주로 고가품, 명품 취급 * Jungfernstieg역 하차</p>
<p>약국 Apotheke (약국 통칭, 아포테케) 거리명 : Ballindamm 40a 또는 시내 곳곳에 위치 * 독일 "빨간 치약(Ajona)", 얼굴, 핸드크림, 비타민, 로얄젤리 등 구입 가능 * Jungfernstieg역 또는 Rathaus역에서 하차</p>

○ 주요 관광지

함부르크 시내	
	<p>함부르크 필 하모니 Elbphilharmonie Hamburg - 독일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로 17년 1월 개장 - 건물 내에는 2,100석의 그랜드 콘서트홀, 호텔, 아파트 그리고 시민의 광장 등을 갖춘 - 하펜시티 앞에서 출발하는 수상버스 탑승 시 필하모니 전경을 가까이서 감상 가능</p> <p>* 주소 : Platz der Deutschen Einheit 1, 20457 Hamburg</p>
	<p>함부르크 시청 Hamburg Rathaus - 1897년 완공된 함부르크 시청은 네오르네상스 양식으로 건축 - 중심에 위치한 첨탑은 112m로 함부르크의 랜드마크 - 안뜰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2개로, 함부르크 역사에서 의미를 지니는 주교, 백작의 조각으로 꾸며져 있음. - 도보 3분 거리에 알스터 호수(Binnenalster) 위치</p> <p>* 주소 : Rathausmarkt 1, 20095 Hamburg</p>



성 미카엘 교회 Hauptkirche St. Michaelis

- 1750년 첫 완공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수리됨.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피해 없이 그대로 남아있음.
- 타워에 걸린 시계는 독일에서 가장 큰 천탑시계임. 타워에서 함부르크 시 및 항구 조망 가능, 입장료 5유로
- 지하에는 성 미카엘의 납골당이 있으며 관람 가능.
- 개신교를 위한 교회라는 것이 독일 성당과 다른 점임.

* 주소 : Englische Planke 1, 20459 Hamburg



함부르크 항구 Hamburg Hafen

- 함부르크를 가로지르는 엘베강을 끼고 있는 독일 최대 항구
- 강 건너편에는 뮤지컬 섬이 있어 배를 타고 건너가 뮤지컬 관람 가능
- 매년 5월 항구기념일을 맞아 폭죽놀이, 공연, 유명 유람선 정박 등 다양한 축제들이 열림.
- 함부르크 대표 엘브필하모니 공연장도 볼 수 있음.

* 주소 : U3 Baumwall 역~Landungsbrücken 역 하차



미니어처 박물관 Miniatur Wunderland

- 2000년 설립된 이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긴 모델 철도를 가지고 있음.
- 총 9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함부르크, 미국, 스칸디나비아 및 가상 세계를 실현함.
- 낮과 밤을 구별하는 등 실제 생활과 가장 근접하게 구성함.

* 주소 : Kehrwieder 2-4/Block D, 20457 Hamburg



함부르크 레퍼반 Hamburg Reeperbahn

- 함부르크의 변화가 중 한 곳으로 다양한 상점과 음식점 및 간단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즐비
- 비틀즈는 리버풀에서 결성된 이후 이곳으로 건너와 1960년부터 62년까지 공연함. 비틀즈가 공연했던 클럽 중 일부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음.
- 밤늦은 시간에는 위험한 지역이므로 안전에 주의 필요

* 주소 : 20359 Hamburg



함부르크 미술관 Kunsthalle Hamburg

- 1,869년에 설립된 150년 역사의 미술관으로, 2014년부터 3년간 1,500만 유로를 들여 건물 개보수 작업을 진행
- 렘브란트, 루벤스, 카날레토, 드가, 모네, 뭉크, 폴 클레 등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으며, 카스퍼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1818)가 유명

* 주소 : Glockengießerwall, 20095 Hamburg

함부르크 주변 명소



브레멘 Bremen

- 독일 북서부 지방에 위치한 자유시로, 브레멘 주의 주도임.
- 함부르크와 함께 독일의 주요 항구 도시 역할
- 그림형제의 브레멘 음악대 동화의 배경이 되는 도시로, 도시 곳곳에 동물 음악대 동상 및 간판들이 있음.
- 시청사 옆에 유명한 동물 음악대 동상이 있으며, 당나귀 다리를 만지면 복이 온다는 전설이 있음.
- 또한 광장에 자유의 상징인 롤란드 상이 있으며, 롤란드의 무릎을 만지면 브레멘에 다시 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음.
- 함부르크 기준 약 122km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차량으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



뤼베크 Lübeck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로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주에 위치함.
- 홀스텐토어(Holstentor; 좌측 사진) : 한자동맹 시대 서쪽으로부터 시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세 후반기에 세워짐. 고딕 후기 양식을 띄고 있으며 내부에는 도시 역사 박물관이 있음.
- 도심에서 기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Travemuende 해수욕장이 있음. 동해(Ostsee)에 맞닿은 곳으로 여름철 휴양지로 유명함.
- 함부르크 기준 약 55km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기차로 1시간 이내 소요



슈타데 Stade

- 함부르크 아래쪽 엘베강 하류에 위치, 니더작센주에 속한 도시임.
- 1667년 건립된 시청사와 고딕양식의 교회들이 유명
- 슈타데는 현재 함부르크 대도시 지역에서 산업 및 서비스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특히 CFK Valley(복합섬유 관련 클러스터)가 위치하여 동 분야의 세계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음.



슈베린 Schwerin

- 독일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의 주도로, 함부르크에서 94km 떨어진 곳 (자동차로 편도 1시간 30분 소요)
- 슈베린 도시에 있는 섬에 세워진 슈베린 성이 가장 유명함. 약 천 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완공된 이 성은 '북쪽의 노이슈바인슈타인성' 혹은 '동화 속 성'으로 불리고 있음.
-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후보에 올라있음.

☐ 베를린(Berlin)

○ 식당 정보

[한식]

한옥 (Hanok) - 주소: Kurfürstendamm 134, 10711 Berlin - 전화번호 : +49 30 8954 1892 - 홈페이지 : hanok-berlin.com	* 가격: 13-35유로(점심:12-15유로) * 인기메뉴: 비빔밥, 김치찌개
고향 (Furusato) - 주소 : Leibniz Strasse 35, 10625 Berlin - 전화번호 : +49 30 313 7575 - 홈페이지 : furusato.de	* 영화 '베를린' 촬영지 * 인기메뉴: 김치찌개, 된장찌개
아리랑 맛집 - 주소 : Bundesallee 93, 12161 Berlin - 전화번호 : +49 30 9837 2185	* 가격: 12-26유로 * 인기메뉴: 제육덮밥, 짜장면
서울관 - 주소 : Schmiljanstraße 25, 12161 Berlin - 전화번호 : +49 30 852 6262 - 홈페이지 : seoul-kwan.de	* 가격: 12-20유로 * 인기메뉴: 불고기, 탕수육
호도리 - 주소 : Goebenstraße 16, 10783 Berlin - 전화번호 : +49 30 215 3562 - 홈페이지 : restaurant-hodori.de	* 가격: 12-25유로 * 인기메뉴: 비빔밥, 불고기

[독일 식당]

Lindenbräu - 주소: Bellevuestrasse 3-5, 10785 Berlin - 전화번호 : +49 30 2575 1280 - 홈페이지 : http://www.bier-genuss.berlin/	* 베를린 포츠담 광장 근처 * 사전 예약 필수
Georgbräu Bräuhaus - 주소 : Spreeufer 4, 10178 Berlin - 전화번호 : +49 30 242 4244 - 홈페이지 : brauhaus-georgbraeu.de	* 알렉산더 광장, 박물관 섬 근처 * 가격: 15-18유로
Alt Luxemburg - 주소 : Windscheidstraße 31, 10627 Berlin - 전화번호 : +49 30 323 8730 - 홈페이지 : alt-luxemburg.de	* 가격: 15-30유로 * 인기메뉴: 해산물, 와인
Tiroler Bauernstuben - 주소 : Heerstraße 137, 14055 Berlin - 전화번호 : +49 30 3009 9466 - 홈페이지 : tiroler-bauernstuben.de	* 가격: 26-40유로 * 뷔페, 채식 식사 가능

○ 호텔 정보

분류	호텔명	주소	전화번호
5성급	Adlon Kempinski Berlin	Unter den Linden 77, 10117 Berlin	030 22610
	The Regent Berlin	Charlottenstraße 49, 10117 Berlin	030 20338
	Grand Hotel Esplanade	Lützowufer 15, 10785 Berlin	030 254780
	JW Marriott Hotel Berlin	Stauffenbergstr. 26, 10785 Berlin	030 20650
	The Westin Grand Berlin	Friedrichstr. 158-164, 10117 Berlin	030 20270
	Hilton Berlin	Mohrenstr. 30, 10117 Berlin	030 202300
	The Ritz-Carlton Berlin	Potsdamer Platz 3, 10785 Berlin	030 337777
4성급	Pullman Berlin Schweizer Hof	Budapester Str. 25, 10787 Berlin	030 26960
	Scandic Kurfuerstendamm	Augsburger Str. 5, 10789 Berlin	030 212420
	Ramada Hotel Berlin	Karl-Liebknecht-Str 32, Mitte, 10178 Berlin	030 3010 4110
	InterCityHotel Berlin Hbf	Katharina-Paulus-Str 5, Mitte, 10557 Berlin	030 288 7550
	NH Hotel Berlin Mitte	Leipziger Str 106-111, Mitte, 10117 Berlin	030 203 760
	Novum Winters Hotel The Wall Berlin	Zimmerstr 88, Mitte, 10117 Berlin	030 308 7770
	Schlosspark Hotel	Heubnerweg 2a, 14059 Berlin	030 3269030
3성급	Sorat Hotel Ambassador Berlin	Bayreuther Str. 42-43, 10787 Berlin	030 219010
	Novum Hotel City B Berlin Centrum	Potsdamer Straße 129, 10783 Berlin	030 23637100
	Motel One Berlin-Upper West	Kantstrasse 163-165, 10623 Berlin	030 3229 31900
	Hotel Augusta am Kurfuerstendamm	Fasanenstr. 22, 10719 Berlin	030 8835028

○ 시내 쇼핑 정보

<p>백화점 Kaufhaus des Westens/KaDeW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Tauentzienstr. 21-24, 10789 Berlin (U1,2,3 Wittenbergplatz 역 하차) - 고가에서부터 중저가 유명 브랜드 입점 - 운영시간 : 10:00~20:00 (월-목) / 10:00~21:00(금) / 10:00~20:00 (토) / 일요일 휴무
<p>백화점 Galeria Kaufho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Alexanderplatz 9, 10178 Berlin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 고가에서부터 중저가 브랜드 입점 - 운영시간 : 10:00~20:00 (월-토) / 일요일 휴무
<p>백화점 Karstad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Kurfürstendamm 231, 10719 Berlin (쿠담 거리) - 고가에서부터 중저가 브랜드 입점 - 운영시간 : 10:00~20:00 (월-토) / 일요일 휴무
<p>전자상가 Media Markt Berlin-Mitt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Grunerstr. 20, 10179 Berlin -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근처 위치 - 유명 전자제품 및 백색가전 입점 - 운영시간 : 10:00~20:00 (월-토) / 일요일 휴무

○ 베를린 주요 명소

	<p>독일연방 국회의사당 Reichstag Build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독일 민주주의가 좌절된 장소였지만 통일 후 리모델링을 거쳐 새로운 독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탈바꿈 - 상부의 유리돔은 베를린의 랜드마크 - 국회 방청 및 내부 관람 희망 시, 국회의사당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 필수 (bundestag.de) <p>* 주소 : Platz der Republik 1, 11011 Berlin</p>
	<p>베를린 대성당 Berliner Do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47년부터 건축된 건물,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을 받아 건물 외관에 화약자국 및 총알자국이 남아있음. - 프리드리히 2세에 의해 호엔촐레(Hohenzoller) 가의 묘지 용도로 건축되었으며, 성당 지하에서 지하묘지 관람 가능 <p>* 주소 : Am Lustgarten, 10178 Berlin (박물관 섬에 위치)</p>
	<p>브란덴부르크 문 Brandenburger To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개선문으로 1791년 완공 - 개선문 위 '승리의 콰드리가 전차 조각상'이 있음 - 19세기 이후 전쟁에 승리한 프로이센군 및 독일군이 개선할 때 반드시 통과하던 장소 - 독일 재통일 전에는 베를린 장벽의 상징적인 문 <p>* 주소 : Pariser Platz, 10117 Berlin</p> <p>* 같이 둘러볼만한 곳 : Unter den Linden, 독일국회의사당, 훔볼트 대학, 오페라하우스</p>

	<p>베를린 유대인박물관 Jüdisches Museum Berl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국제공모를 거쳐 유대인인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설계한 계획안이 당선이 되었으나, 독창적이고 실험성이 강해 2001년 9월에서야 개관됨. - 유대인의 2천년 역사와 독일의 관계에 관한 자료 전시 - 추모의 의미를 담은 여러 공간들이 지그재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이 특징 <p>* 주소 : Lindenstr 9-14, 10969 Berlin * www.jmberlin.de에서 이메일 및 전화 예약 안내</p>
	<p>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East Side Galle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베를린 장벽 붕괴를 기념해 21개국 105명의 예술가를 초청, 남아있는 장벽에 그린 벽화 갤러리 - 슈프레 강변을 따라 1.3km 가량 계속되며, 세계에서 가장 길고 오래된 공개 갤러리임. <p>* 주소 : Mühlenstraße, 10243 Berlin * 홈페이지 : eastsidegallery-berlin.com</p>
	<p>포츠담 광장 Potsdamer Platz</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를린 교통 중심지이자 상업, 주거, 문화 복합지구 - 쇼핑몰, 음식점이 다수 위치한 변화가 <p>* 주소 : Potsdamer Platz, 10785 Berlin * 홈페이지 : potsdamerplatz.de</p>
	<p>알렉산더 광장 Alexander Platz</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를린 성당, 붉은 시청이 있으며 슈프레 강을 옆에 끼고 있는 교통 요충지 - 독일 표현주의 문학의 거장 알프레트 뉘블린의 대표작 <p>* 주소 : Alexanderpl. 9, 10178 Berlin</p>
	<p>체크 포인트 찰리 Check Point Charlie Berl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전 당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놓인 검문소 중 가장 유명했던 검문소를 지칭함. - 현재는 냉전시대 상징으로 관광객으로 붐비며, 근처에는 유명 초콜릿 가게(Rausch Schokoladenhaus) 등이 소재 <p>* 주소 : Friedrichstraße 43-45, 10117 Berlin</p>

VIII. 함부르크무역관 정보

□ 함부르크무역관 오시는 길(함부르크 공항 → 함부르크무역관)

- (택시) 공항 택시 정류장에서 순서에 따라 택시 이용 가능
 - 약 20분 소요, 요금은 30~35유로임
 - 짐이 많거나 4인 이상일 경우에는 콤비 택시 이용 가능, 요금은 일반택시보다 5~8유로 추가 소요
- (지하철) 공항-무역관까지 환승 없이 바로 연결되며, 약 30분 소요
 - 지하철 노선 S1 탑승, Stadthausbrücke 역 하차, 요금 3.8 유로
 - 하차한 뒤 도보로 약 5분 소요

<무역관 약도>



- 주소 : Axel-Springer-Platz 3, Haus B, 20355 Hamburg, Germany
- 전화 : +49-40-3405-740 / 팩스 : +49-40-3405-7474
- 이메일 : info@kotra.de
- 홈페이지: www.kotra-hamburg.de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